

Vol.327 May+June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답 게 하 는 사 람 들



세상은
나아가는
사람들



Vol.327
May | June 2010

Contents

Special Theme

- 02** **프롤로그** STRUGGLE FOR EXISTENCE
- 04** **Column 1** 위축된 마음의 털(毛)을 뽑아라
- 06** **세아 도전의 현장**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 개발의 결실
- 08** **세아 도약의 현장** 에너지 절감 기본 지키기 캠페인
- 10** **Column 2** 취미, 알고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즐겨라!

세아

- 14** **SeAH History** 제품 다각화와 전문화로 국내 강관업계를 이끌다
- 16** **SeAH Inside** 세아베스틸, NET 인증 획득
세아베스틸, 플라스틱 금형강 특허 획득
세아베스틸, 13,000t 대형 프레스 가동
발전과 화합의 장, 제11회 철의 날 기념 시상식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010년 장학증서 수여
세아그룹, 제3기 챌린지 리더 선발
2010년 세아그룹 상반기 공채 실시
28 **Global SeAH Report** 세아에삼을 중동에 알린 이란 용접 전시회
30 **SeAH Spotlight**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이승헌 과장

세아인

- 34** **Open your Team** 세아 E&T 터보사업부 연구개발팀
- 38** **세아의 길** 세아에삼 25년과 함께 한 주인공들
- 40** **SeAH Rounge** 더 큰 희망을 향해 뛰는 세아제강
- 42** **행복한 나들이** 강남도시가스 요금팀 김진성 대리 가족
- 44** **세아뉴스**
- 49** **사우동정**

세아가 젊음의 이유

젊음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로 따지기에는 좀 억울하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분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도전정신이
바로 젊음을 구분 짓는 잣대라면 과연일까요?

50년의 역사를 지나 재도약을 다짐하는 세아!
불황기를 기회 삼아 나아가고,
골리앗 같은 글로벌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진화를 추구해온 모습에서
우리는 세아의 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아를 움직이는 젊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SeAH

비전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21세기 세계시장의 주역이 되는 기업

경영이념 세아인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풍부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류사회에 기여합니다.

〈세아가족〉 통권 327호 2010년 5+6월호

발행일 2010년 4월 26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기획본부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표지촬영 다뷰스튜디오 02-766-8025

내 시간엔 불가능이란 없다

1800년 2월 혹독한 추위의 알프스 산맥 앞에서
나폴레옹은 이 말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말하던 알프스를 넘어
세계 재패의 꿈을 현실화했습니다.

힘들다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도전해보지 않은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무한도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처음 '무모한 도전'에서 시작해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무한도전'이 되기까지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무한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역사의 많은 영웅들 역시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세상에 홀로 서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위축된 마음의

털(毛)을 뽑아라

글 ● CEO전기작가 이종진



털(毛)을 뽑으니 '무모한 도전'이 '무한도전'으로

국민 MC 유재석의 진행으로 많은 인기를 끌며 장수하고 있는 버라이어티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출범 당시 타이틀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출연진들이 황소와 줄다리를 하고 전철과 달리기 시합을 벌이는 등 엉뚱하고 무모해 보이는 발상을 선보였지만, 시청자들의 시큰둥한 반응 이상 얻어낸 게 없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이 무모한 도전들은 현실의 크고 작은 장애물 때문에 웅크리고 살아야 했던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대리만족을 선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불가능의 전제를 담고 있던 '무모한'의 꼬리표를 떼고 실현 가능한 의미를 내포한 '무한'으로 바뀌었고, '모' 하나가 빠져 의미가 180도 바뀐 것을 빗대어 '털을 뽑았다'는 우스개가 가능해졌다.

만약 우리 현실이 도전정신으로 가득 찬 분위기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저 그런 잔재미를 추구하는 수많은 오락 프로그램 중 하나로 그쳤을지 모른다는 게 방송가의 정설이다.

현대 사회는 그 복잡성과 이미 고착화 되어버린 체계성으로 인해 사람들을 목표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강력한 괴물의 힘에 주눅 들어 지레 겁먹고 알아서 기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딱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미미한 존재감에서 벗어나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성취한 역사 속의 영웅담이나 성공담은 현대인들에게 영원한 '로망(Roman)'일 수밖에 없다.

'로망(Roman)'은 옛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제국의 후에,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워 중원을 회복한 태조 주원장의 경우도 자신의 무력감에 몸서리치는 현대인들에게 통쾌한 한 편의 '성공 스토리'로 손색이 없다.

떠돌이 조각농의 막내아들이었던 주원장은 참담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대기근의 와중에 부모와 큰 형이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형제는 뿔뿔이 흩어졌다.

주위의 도움으로 힘들게 연명하다 승려가 되어 황각사라는 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말만 탁발승이지 사실상의 비렁뱅이 생활을 4년 더 했다.

그러던 중 1351년 백련교도를 주축으로 한 '홍건적'이 봉기하자 때를 읽은 주원장은 안휘성에서 봉기한 홍건적 광자흥의 수하로 들어갔다. 숨은 재능을 발휘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자흥 군의 2인자가 된다. 광자흥이 죽은 후에는 홍건적 두목 한산동의 아들인 한림왕(小明王)이라는 이름으로 송(宋)을 세우자 그 밑에 들어가 부원수에 올랐다. 세력을 키워 독립한 뒤 그는 1356년 지금의 남경을 점령하고 당시 홍건적 3대 군벌의 하나로 발돋움해 후일 명나라의 기반을 닦는 '기적'을 완성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어린 시절 역시 이보다 나은 게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무력한 현실에만 젖어있기에는 피가 너무 뜨거웠다. 골품제도로 상징되는 신라의 신분 차별에 절망한 그는 친구와 당나라로 건너가 군문에 투신, 이민족 출신으로는 유례 없는 고위직 '무령군 소장'에 까지 오른다. 이후 신라로 금의환향한 장보고는 당시 홍덕왕에게 해적을 소탕하겠다는 청원을 올려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독립세력으로 성장해 당나라와 신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바다의 제왕'으로 입지를 다졌다.

흔히 맨주먹에서 시작한 위인들의 '기담'을 듣게 되면 대개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라는 '망발'을 생각지도 않고 내뱉는다. 과연 거지와 탁발승, 하층민의 삶이 후세인들에게 "그 사람이니까"라는 푸념을 들을 정도로 비밀만한 언덕일까. 현대 사회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비틀리고 휘어버린 마음에서 '털 하나(毛)'를 뽑아보자. '무모한 도전'이 '무한도전'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지나.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에서는 주로 전략 상품을 개발하고 제품 설계를 담당한다. 고객사의 요구와 시장의 기술 흐름을 빠르게 읽어 제품의 연구개발에 접목하여 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신기술을 확보한다. 때문에 도전은 바로 생활이다. 최근 '고인성 비조질강'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강종의 개발은 바로 이러한 도전의 산물이다.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의 결실

글 ●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 김성유

고부가가치 고인성 비조질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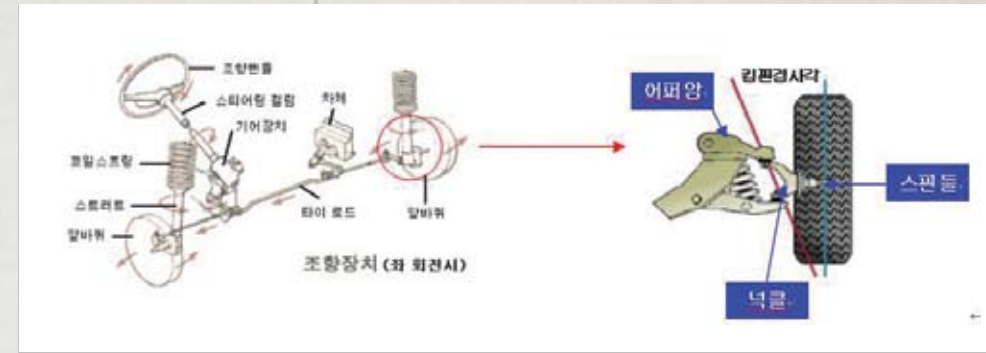
자동차의 여러 장치 중 하나인 조향장치는 차의 진행방향을 임의로 바꾸는 장치로 바퀴에 연결된 부위를 통틀어 링크 기구라고 한다. 링크 기구는 어퍼암, 스프링들, 너클 등으로 구성되고, 이 부품들은 핸들 조작을 바퀴에 전달해 좌우 바퀴의 관계 위치를 바르게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링크 기구는 주행 중에 지면에서 전달되는 불규칙한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므로 고인성(高靱性)의 소재가 필요하다. 인성은 물체를 변형시키는 응력이 가해졌을 때 소재의 파괴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데, 인성이 높을수록 소재는 파괴되지 않고 잘 버틴다. 이러한 고인성의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탄소강을 열간단조하여 조질 열처리(Quenching & Tempering)를 거쳐 생산해 왔으나, 열처리 공정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공정 지연,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간단조만으로도 조질 열처리 제품과 동일한 혹은 더 우수한 성질을 구현하는 소재



개발이 절실했고, 약 2년 간의 연구 끝에 고인성의 비조질강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의 열처리 공정을 생략하면서 동등한 품질을 확보함에 따라 제조원가를 절감하게 된 것은 고인성 비조질강 개발의 가장 큰 성과이자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객지향형 연구개발의 성공사례임과 동시에 독자기술로 고부가가치 강종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독점적인 기술력도 확보하게 됐다. 고인성 비조질강은 기존 탄소강에 비해 가격, 효율, 품질 등 다방면에서 뛰어나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국내 시장에 낮은 인식의 장벽을 넘다

반면, 고인성 비조질강 개발 진행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었다. 해외에서는 포드 머스탱(Mustang)의 너클 이외에도 고인성 비조질강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차량의 링크 기구에 적용하는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서 이용 가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우선 고인성 비조질강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수많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사들과 장기간 점진적인 교류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주도했다. 사소한 공정 변화에도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해함에 따라 관계사 역시 적극적으로 개발에 참여, 협조해 주었다. 한편, 너클, 어퍼암, 스프링들 같은 부품은 형상이 매우 복잡하고 차종 별로 상이한 형태를 보인다. 최종 제품 개발과정에서는 소재에서의 물성뿐만 아니라 단조 및 가공 후의 물성까지 평가해 적정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했다. 최종 제품의 물성 평가 그 자체가 일단 매우 까다롭고 위험했다. 특히 단조작업

의 공정기준까지 설정해 주어야 하는 광범위한 관리로 진행이 수월하지만은 않았지만, 소재의 발전에서 나아가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명이라 생각하며 정해진 개발 계획의 실행을 완료했다. 이후로도 제품연구그룹에서는 눈앞의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개발에 임하여 세아베스틸이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본연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에너지 절감 기본 지키기 캠페인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를 조금씩만 아껴도, 개개인의 사용량이 조금만 감소해도 에너지가 절약되는 양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 절약의 시작을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 만난다.

글 ●● 세아제강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강대현 전문직팀장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 지키기

기본이라 하면 아주 근간이 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아주 철두철미하면서 공공의 일은 너무 대충 생각하는 마음도 말처럼 쉽지 않은 기본 지키기의 예라 할 수 있다.

가끔 대중목욕탕에 가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을 펄펄 쓰는 광경을 목격한다. 가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내 것은 아끼

고 남의 것은 펄펄 써도 된다는 인식이 불러온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들 적당히 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잘 들여다보면 주어진 자원들이 과다 사용되거나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조관기 용접 과정을 살펴보자. 동일한 제품의 용접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1,500kw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이 1,300kw를 사용한다면, 200kw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좋은 질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야 결코 효율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장에서 운전 표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낭비 없이 최적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함이다. 1,300kw에서 200kw를 더 사용했다는 것은 작업자의 업세팅량이 부족했거나 과도하게 열을 가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전력비 기준 대비 제조원가가 높게 나타나므로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절약

1,500kw와 1,300kw의 에너지 사용 차이를 순수 전력비로 계산해 본다면 작은 차이가 불러오는 낭비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포항공장의 전력비를 감안해 1kw 당 전력비를 100원으로 설정하고, 조관기를 2교대로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kw는 1시간에 2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하루의 소모비용은 320,000원(20,000×16시간), 한 달이면 7,040,000원(320,000원×22일 가동)이 된다. 현재 포항공장에 14대의 자동 용접기가 있으니 월 98,000,000원(7,040,000원×14대), 연 1,182,720,000원(98,000,000×12개월)을 소모하는 셈이다.

포항공장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 소모가 큰 비용손실을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공기압축기, 조명,

선풍기, 난방용 가스, 에어컨 등 5가지를 기본 지키기 활동에 포함해 관리했다. 특히 소모가 가장 많은 공기압축기에 대해 전 공장의 에어밸브를 제어하며 밀착 관리했다.

포항공장의 전문직 팀장 27명은 기본 지키기 운동으로 현장의 에어 서비스 탱크의 개수 밸브 수량을 파악·취합하여 중식·석식·퇴근 시간에 밸브를 잠궈 누기로 인한 소모를 줄여 왔다. 약 8개월 동안 이러한 활동을 펼쳐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전체 전력비 대비 공기압축기 전력비가 약 18%에 이르던 것이 13%대로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다. 많은 전문직 사원들이 기본 지키기 외에도 틈나는 대로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개선과 절약의 손길을 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에너지 절약의 기본 지키기 실행은 세아제강 포항공장 300여 명의 전문직 사원 모두가 '나로부터 절약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제 기본 지키기의 지속적인 실천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직 사원들의 끈임 없는 관심과 관리가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다.



도전하라! 취미는 제2의 인생이다

단조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취미는 심표이자 도전이다. 잔잔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그 활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좀더 활기차게 보낼 수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잔잔하고 조용한 수면 위로 조약돌을 던지듯 소리 없이 넓게 퍼지는 '취미'라는 파문을 즐겨볼 때다.

글 ●●● 직장인을 위한 유쾌한 성공론, 저자 김도연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그의 현재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의 취미생활이다. 취미를 한참 만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희색이 만연한 채 즉시 대답을 하는 이도 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보다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것이 훨씬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수월하다. 과도한 업무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일만 한다고 업무효율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할 때 업무 만족도와 함께 행복지수도 상승한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직장생활에 올인해서는 절대 성공과 행복을 거머쥌 수 없다. 일에 버금가는 열정으로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아마추어 이상의 오르간 실력을 가졌고, 시인 타고르는 자신의 시를 노래로 만드는 탁월한 작곡가였다. 이처럼 취미는 감성을 단련시키고 단련된 감성은 다시 본업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비가 존재한다. 취미라고 해서 그저 짜투리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다. 취미는 개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이다. 즉 취미가 자기계발이 되어 또 다른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당신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동안 타인들은 책장을 넘기며 땀을 흘리며 자신의 취미를 계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개미와 베짚이의 운명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는 논어의 구절이 있다. 아마 취미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문구가 있을까? 그래서 때론 직업으로 삼은 전문가보다 취미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의 능력이 더 뛰어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며 우리를 줄곧 세뇌시켰던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 20세기 버전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 21세기 버전은 어떨까? 20세기에는 개미가 성공했지만 21세기에는 베짚이가 성공한다. 20세기에 베짚이는 ‘노세 노세 좇아 노세’의 악역으로 등장했다. 일보다 취미생활만 즐기다가 인생 후반전을 망치는 이야기 말이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역전이 된다. 부지런히 일만 하던 개미는 업무 과다로 병원 신세를 지고 취미생활에 빠져 있던 베짚이는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기질을 살려 음반을 발매하여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이 21세기 식 개미와 베짚이 이야기다.

즐거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여행이 취미였던 직장인이 있었다. 그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짬짬이 세계여행을 다녔다. 무려 40여 개국을 여행하며 느낀 감상을 여러 매체에 투고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댈 때 그녀는 계획을 세워서 용감하게



취미는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이다

여행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간의 여행경험과 정보를 묶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그녀의 『일하면서 떠나는 짬짬이 세계 여행』은 2007 여행 분야 베스트셀러에 선정되는가 하면, 저자인 조은정씨는 이 책 이후로 몇 권의 책을 더 출간하고 이제는 여행작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 밖에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취미삼아 그리던 펜화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밥장, 영어교사 출신인 체리필터 보컬 조유진, 잡지사 기자였다가 늦은 나이에 요리에 미쳐 이탈리아 유학을 다녀온 후 유명 셰프가 된 박찬일 등 취미가 본업으로까지 발전한 이들도 있다.

개인이 행복해지는 법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는 자신의 임상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저서 ‘행복한 이기주의자’에서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똑똑한 사람이라며, 철저히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될 것을 강조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취미는 일에서 얻을 수 없는 정서적 안정감과 다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준다.

단, 취미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잡자. 취미도 전문성 있게 확보한 사람들은 일에서도 프로페셔널을 추구한다. 취미를 아는 수준, 좋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즐길 수 있는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리자. 그러면 취미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긴장감을 지닌 프로가 아름답다

- 자기계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한 미래 대비형 자기계발 실천

글 •• 한국번디 경영기획팀 김재갑

1. 지금 하고 있는 자기계발

세 가지 정보수집 실행 목표를 토대로 '난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달 2권 이상의 교양도서 탐독, 외국어 2년 안에 목표수준에 도달, 맡은 분야에 관한 전문서적, 경제이슈,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스크랩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2. 결심한 계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처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긍심과 자기만족을 찾기 위해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라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밖에는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3. 영감이나 자극을 주는 것들

가장 감명 받은 문구가 있어 이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도전 하시겠습니까?'

여기,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한숨부터 납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완성될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모서리부터 차근차근 맞춰가다 보면 서서히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던 조각이 맞춰질 때의 그 희열은 말로 다할 수 없죠.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비슷할 겁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고 도중에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몇 번이나 다잡고는 하지요.

목표를 이룬 후의 짜릿한 성취감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한 열매죠.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 목표에 다가가는 당신, 그런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4. 현재 상황

여건상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작은 변화부터 도전하여 이룬다는 자세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좌우명을 항상 되새깁니다. 미래 대비형으로 살면서 이번만큼은 제가 세운 목표를 꼭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자기계발의 최대 목표

자기계발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나를 창조하여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자기계발

중국어

2. 결심한 계기

호텔 중식당에서 인턴을 하며 광동요리의 진수를 맛본 뒤, 무작정 중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중식조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중국 호텔에서 일하는 것쯤은 쉽겠지'하고 떠났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면서, 칼을 빼 들었으니 적어도 무라도 자르지는 심정으로 현지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갔는데, 실제로 중국인들과 생활을 해보니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에서 또 한번 큰 벽을 실감하며 중국의 문화와 어학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됐지만, 현재는 중국어 지도사라는 새로운 꿈을 꾸며 중국어 심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3. 영감이나 자극을 주는 것들

가장 든든한 지원자는 남편입니다. 생각해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따뜻한 말로 남편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똑똑하다"는 위로의 말 한 마디에 언제 힘들었느냐는 듯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4. 현재 상황

5월 중국어를 공부한지 정확히 6년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끈을 놓지 않았던 건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되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00개의 단어를 외워가며 18시간씩 공부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포기하면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았어요. 그 결과, 지금은 혼자서 중국을 간다고 해도 두렵지 않을 만큼의 실력은 갖게 되었습니다.

꿈의 크기를 키워가는 재미로 자기계발에 충실

글 ••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강소연



5. 자기계발의 최대 목적

2008년에 당초 목표했던 중국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분야에서 완벽하지 못해도 완벽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완벽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현재의 부족한 실력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자질을 갖춘 중국어 지도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제품 다각화와 전문화로 국내 강관업계를 이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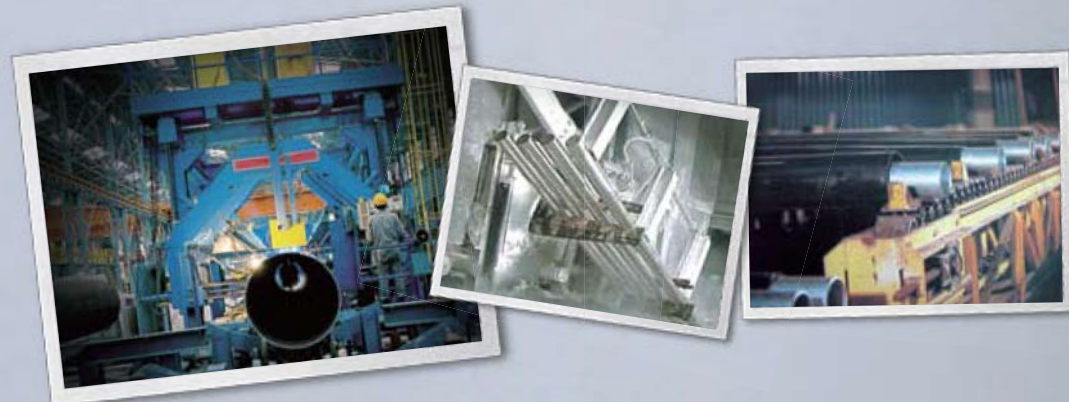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 등 격랑의 70년대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한 1980년대는 부산파이프에 큰 도약의 시기였다. 제1기 창업시대를 마감하고, 연륜과 패기가 조화를 이룬 이윤형 사장체제가 출범하는 한편, 시기적으로도 이룩한 성장의 토대 위에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을 맞는 때이기도 했다.

SeAH History

제품 다각화와 전문화 실현

부산파이프는 포항 1공장 건설공사가 궤도에 오르자 1980년 8월, 1공장 맞은편에 전선관과 구조관 등 소구경 제품을 연간 5만8천t까지 생산할 수 있는 2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일부 이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고, 자체기술로 설비 설치를 마친 2공장은 기술적 성취도를 높임과 동시에 생산 관종의 집중화와 일관공정을 통한 기술 및 제반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특히 제품의 특수성을 살리는 생산체제로써 제품별 대량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계적인 강관 메이커로 성장하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

1981년에는 포항 3공장을 신축해 서울공장의 설비들을 이설, 중구경 강관 생산을 위한 단일공장의 면모도 갖추었다. 3공장은 대부분 축적된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 건설했고, 국내 최초로 대강(帶鋼)을 연결하지 않고 연속 조관이 가능한 Cage Forming 방식을 채택해 연간 24만 t 이상의 후육관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3공장 건설로 부산파이프는 유정관, 송유관 등 각종 고급의 중구경 강관 총 72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강관 제조업체로 부상했다. 강관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 부산파이프는 당시 동력자원부로부터 단열이중관 개발을 요청 받아 1985년 서울공장 내에 단열이중관 공장 건설에 착수,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며 매출을 증대시켰다. 1988년에는 29억 원을 투자해 대형 강관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춰 일본 수출 증대와 함께 국내의 칼럼용 강관 수요에 대응했다.



도약의 중심에 선 포항공장

이후에도 부산파이프의 설비 투자는 계속됐다. 1989년에는 서울공장에서 생산하던 스파이럴 설비 이설과 새로운 조관라인을 도입한 스파이럴 전용의 4공장을 포항에 세워 외경 및 두께의 생산범위를 확대하면서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했다. 아울러 포항공장의 이어지는 설비 신증설로 3곳으로 분산된 도금공장의 합리화를 추진해 1990년에는 자동 도금라인을 갖춘 도금공장을 준공, 13만6천t 아연도금 능력을 확보했다. 산업의 고도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89년에는 서울공장에 스테인리스 강관 공장 건설도 착수, 스테인리스 강관 생산 공정을 발전시켜 티타늄 튜브까지 출시하게 됐다. 이어 전국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LNG 배관망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고급 대구경 강관의 국산화를 위해 1991년 포항에 LD공장을 세웠다.

서울과 포항에 생산설비가 신·증설되면서 점차 축소되어 온 부산공장은 1980년, 포항 2공장 건설에 따른 설비 이설을 끝으로 1980년, 5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부산공장에 이어 성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공장도 포항공장에 핵심지위를 내주고 서서히 역사의 중심에서 비켜서기 시작했다.

기술개발 선도의 기틀이 된 기술연구소 설립

날로 늘어가는 강관 수요와 고급화 추세는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을 선도할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특히 제2의 도약을 위한 포항공장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대응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진일보된 체계적인 연구개발체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87년 기술연구소가 정식 출범했다. 국내 강관회사로는 유일하게 설립한 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처럼 제강과 강관 분야가 독립돼 있는 실정에서도 유기적인 협력과 정보교류로 시너지를 높여 명실 공히 강관기술의 요람으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다졌다. 기술연구소는 서울공장의 단열이중관 사업을 비롯해 포항 2공장 설비 신설, 도금공장 신설, 스테인리스 강관 설비 신설, LD80 대구경 강관공장 신설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해외 선진업체들과의 기술 제휴 및 협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Inside #2

세아베스틸, 13,000t 대형 프레스 가동

세아베스틸의 대형단조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지난 2월, 대형단조용 150t 전기로 가동에 이어 최근 13,000t 대형 프레스 설비까지 가동시킴에 따라 쇳물에서 제품까지 연 10만t 이상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잉곳 공급 위한 150t 전기로 가동

세아베스틸은 고품질의 대형단조제품 생산을 위한 13,000t 대형 프레스 투자에 맞추어 먼저 총 부지면적 8595㎡(약 2,600평)에 775억 원을 투입해 대형 잉곳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단조 전용 150t 전기로와 합금철 투입장치, 집진기 등을 갖춘 조괴공장을 준공하고 2월부터 본격 가동해왔다. 이에 따라 직접 대형 조괴공장에서 잉곳을 생산하여 대형단조공장에 안정적으로 쇳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대형 조괴공장에서는 기존 소형 잉곳과는 별도로 30~500t의 잉곳을 연간 30만t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600t급 대형 잉곳의 진공주조와 국내 최초로 도입된 LTL 주조 등 새로운 잉곳 생산 기술이 적용되어 세아베스틸은 원자력, 발전, 플랜트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단조제품 수주의 길을 열었다.

국내 최대 단조품 생산체제 구축

5월 첫 가동을 시작한 13,000t 대형 프레스는 최신 유압방식의 프레스로서 수압방식 프레스보다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단조작업의 공간이 높이 8m, 폭 7m에 달해 국내 최대 크기의 단조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13,000t 대형 프레스와 150t 전기로 등 대형단조제품 생산을 위한 체제 구축에 들어간 총 투자비는 3,200억 원이 소요됐다. 제강에서 단조, 열처리, 가공에 이르는 일관라인을 구축하여 이상적인 레이아웃(Lay-Out)을 실현하고, 이로 인해 소재의 열간 장입이 가능해져 품질과 원가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향후에는 열처리와 가공라인을 제품의 수주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약 1,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공라인을 갖춘 새로운 공장은 2011년 완공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선박용 Crank Shaft, 풍력발전용 Rotor Shaft, Backup Roll 발전설비, 화학용 Forged Shell 등을 생산하여 2013년 매출 4,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단조시장 적극 공략

2008년에 비해 국내 대형단조업체들의 가동률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지만, 일부 경쟁사의 경우 여전히 많은 물량을 확보해 생산하고 있어 불황 속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국내 업체들이 풍력, 조선 부문에만 주력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세아베스틸은 풍력 부문보다는 원자력, 화력, 수력, 항공설비 등 대규모 설비나 고도 설비 부문에 집중하는 한편, 조선업의 비중은 20% 정도 생

산을 계획하고 있다.

주 수주산업인 조선시황이 아직 저조하지만, 발전, 플랜트 등의 인프라와 관련한 수요가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세아베스틸은 오랜 특수강 생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원자력 등 고급제품시장에 진입해 조기에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증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9월 말까지 모든 인증 획득을 마치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형단조사업의 투자는 위기 뒤에 다가올 기회를 선점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최근 3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제강 전기로 및 볼름라인 합리화에 따라 80t 전기로를 90t으로 확대하고 90t 전기로 1기를 추가로 신설, 현재 90t 전기로 3기와 150t 전기로를 가동 중에 있다. 150t 전기로가 새롭게 가동되면서 세아베스틸의 제강 능력은 현재 연간 180만에서 특수강 200만, 대형단조 30만 등 총 230만까지 확대됐다.

Inside #3

발전과 화합의 장, 제11회 철의 날 시상식

한국철강협회가 제11회 철의 날을 맞아 6월 9일 포스코센터 스틸 클럽에서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정준양 철강협회 회장을 비롯한 철강업계 및 수공업체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갖고 철강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다졌다.

세아제강, 선진 노사관계 정립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날 기념식에서는 철강업계 종사자 중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다방면에 공헌한 자에게 포상하는 시상식도 어김없이 치러졌다.

세아에서는 세아제강 2명, 세아베스틸 2명 총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고 시상대에 올랐다. 먼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세아제강 포항공장 업무지원팀 금한혁 팀장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면서 특유의 친화력과 책임감으로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노사관행 정립에 힘써왔다. 특히 노사갈등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과 대화로 문제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선진 노사관계 실천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좋은 본보기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아베스틸, 철강기술상과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한편, 철강인들의 창의와 연구개발 의욕을 진작시켜 철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82년에 제정, 올해로 27회를 맞은 철강기



세아제강 포항공장 업무지원팀
금한혁 팀장(국무총리 표창)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
왕성도 부장(철강기술 장려상)

세아제강 STS영업팀
김정욱 팀장(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세아베스틸 대형정정팀
박경래 기장(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술상으로는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 왕성도 부장이 철강기술 장려상에 선정되어 세아의 이름을 빛냈다. 왕성도 부장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다. 이 외에도 세아제강 STS영업팀 김정욱 팀장, 세아베스틸 대형정정팀 박경래 기장이 각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철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철강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철의 날을 축하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철강업계, 2010년 철강생산 8,000만 톤 돌파할 것

11번째 철의 날을 맞은 한국철강협회 정준양 회장은 “올해는 국내 철강산업이 대대적인 투자의 결실을 거두는 해”라며, “철의 날을 맞아 국내 철강산업이 더욱 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은 “위기는 곧 기회인만큼 철강업계가 올해 계획된 7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인식시키고, 철강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대식 옹공로에서 처음 쇳물이 생산된 6월 9일을 2000년부터 철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와 마라톤대회, 철강 사진전 등 각종 부대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철강협회는 ‘철의 날’을 맞아 국내 철강업체 250여 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0년 철강생산 능력’을 조사한 결과 사상 처음으로 8,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Inside #4

세아그룹, 제3기 챌린지 리더 선발

세아그룹이 핵심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 리더 프로그램이 올해로 제3기를 맞았다. 2010년 제3기 챌린지 리더로 새롭게 선발된 세아의 직원들은 4월 22일 이운형 회장의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1차 워크숍에 참여해 본격적인 1년간의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세아의 발전 이끌 주역으로

8개 계열사 21명의 3기 챌린지 리더들은 인사고과, 역량, 평판 등 평가지표가 종합적으로 우수한 대리에서 과장급 사원들로, 소속 회사의 추천과 세아홀딩스 기획본부장의 면담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챌린지 리더에게는 앞으로 1년간 그룹 차원의 다양한 교육 훈련, 과제수행, 체험 등으로 구성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운형 회장은 격려사에서 "언제 또 큰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난 위기를 경험했던 바와 같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며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세아그룹의 모태가 되는 세아제강이 뜻 깊은 5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각 사가 곳곳에서 활발한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와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라며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갖추어 세아의 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신의 문제해결 기법 교육

4월에 열린 1차 워크숍과 6월에 진행된 2차 워크숍의 테마는 '비즈니스 문제해결'이었다. 챌린지 리더들은 1차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중심으로 과제 및 문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Logic Tree와 MECE 등 생각을 확장해 체계적으로 사고·정리하는 맥킨지식 문제해결 기법으로 세부 문제를 규명하고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리포트를 제출한 후, 현재 현업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2차 워크숍에서는 수행 리포트에 규명된 세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Triz 교육이 이어졌다. Triz는 러시아 겐리히 알츠슐러가 1946년부터 17년 동안 20만 건의 특허를 분석하여 만든 문제해결 방법론이다.

1,2차 워크숍 이후에 챌린지 리더들은 계열사의 혁신부문을 살펴볼 수 있는 공장 견학과 5-Days MBA, 경영 시뮬레이션,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 체험, 프리젠테이션 스킬, 리더십, 신규사업 분석 등 우수 인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 스킬, 태도 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Inside #5

2010년 세아그룹 상반기 공채 실시

세아홀딩스는 2010년 상반기 그룹 공개채용으로 최종 3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5월 10일 세아제강 5층 교육장에서 입사 환영식을 가졌다. 연중 하반기에 한 번 실시되어 온 그룹 공개채용이 상반기에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영식을 마친 신입사원은 코바코연수원으로 이동해 6일 간의 집합교육에 참여했다.

신입사원 그룹교육 취지 강화

세아그룹의 공채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세아의 문화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 양성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채용 홍보를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수시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에는 입사 직후 그룹교육을 통해서 세아의 신입사원으로서 소양을 쌓는 기회가 적절한 시기에 주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수시 입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세아인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하고 조직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신입사원 그룹교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각 계열사에서의 수시채용을 지양하고 세아의 신입사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해 그룹 공개채용을 상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하게 됐다. 3월 15일부터 전국 5개 주요 대학에서 채용설명회를 가진 후 주요 채용 포털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와 접수를 진행했다.

경쟁력도 인적성검사 참여율도 높아

상반기 그룹 공개채용은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서류



접수를 시작한 결과, 전체 30명 모집 인원엔 총 4,208명이 지원하여 140: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09년 하반기 95:1 상황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337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4월 17일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인적성검사 전형에 참여했다. 인적성검사 참여율은 타 기업들이 평균 70%의 참석률을 보이는데 비해, 78%를 보였다. 인적성검사는 세아그룹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 경제상식, 인성, 직무적성 검사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인적성검사를 통과한 163명은 각 부문의 담당 임원 및 팀장이 심사하는 면접전형에 참여했다. 4월 28일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틸을 시작으로 29일 세아에셋과 세아이엔티에서 각각 실시됐다. 그리고 5월 4일 140: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세아그룹 공채 최종 합격자 30명의 명단이 발표했다. 합격자들은 5월 10일 입사 환영식을 시작으로 5박 6일 간 경기도 양평 소재의 코바코연수원에서 입문교육을 거친 후 5월 17일부터 각 계열사 해당 업무에 배치됐다.



이란 용접 전시회, 세아에샵의 브랜드를 중동시장에 알리는 초석이 되다

글 ● 세아에샵 해외영업팀 조창제 팀장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동 산유국,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 협력회의) 등은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산유국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70~8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아버지 세대들의 많은 땀이 배어 있는 아련한 추억이 깃든 곳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수차례의 전쟁으로 여전히 불안감과 낯선 기분이 느껴지는 먼 나라이다.

중동의 산유국 가운데 특히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과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부국이자, 미국의 경제 협력으로 중동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동의 맹주로 통했다. 하지만 혁명 이후의 이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미국의 제재로 풍부한 자원과 광활한 영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30여 년 동안 경제 활동이 정체되어버린 매우 폐쇄된 중동국가라는 인식이 컸다. 지리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가까웠지만, 심리적으로는 훨씬 멀게 느껴지는 이란에, 나는 2006년 4월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이란에서 개최하는 산업소재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란의 현지 판매 에이전트와 함께 국영 Oil&Gas 전시회에 참가를 결정하게 되면서 세아에샵은 스테인리스 용접봉을 판매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06년 방문한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분위기는 새로 부임한 대통령의 '핵무기 보유 계획' 선언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제재에 대한 시사로 매우 엄중한 안보 상태에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전시회 홍보 준비를 위해 먼저 이란에 도착해 있었는데, 다른 협력 건으로 이란을 찾은 (당시 판매 임원이었던) 유덕상 대표님을 맞이할 겸 현지인원과 공항으로 향하다가 전시 상황을 방블케 하는 풍경을 목격했다. 우리가 탄 차량 밖으로 "잉~"하는 굉음을 내며 사진으로만 보았던 각종 무기들을 장착한 군용차와 군인수송 차량이 테헤란 외곽도로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또 곳곳에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을 검문하는 무장 군인들이 눈에 들어왔다. '용접봉 팔러 왔다가 전쟁이 터져 귀국도 못하는 건 아닌가'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며 함께 동행한 현지 일행에게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다. "평상시에도 이런 군사훈련을 항상 해왔다"며 전혀 걱정 말라는 그의 태연한 말투에 겨우 불안감을 떨쳐낸 기억이 난다.

테헤란 시내에 들어서니 조금 전과 같은 긴장감은 온대간대 없고 시내 중심을 오가는 차들로 붐볐다. 전시장은 2년 마다 열리는 Oil&Gas 전시회를 위해 석유화학 업체들과 관련 산업 담당자들의 준비가 한창이었다. 세아에샵도 이란의 에이전트와 준비에 열을 올렸다. 이란어로 번역된 제품 브로슈어와 기념품은 에이전트가 직접 준비하고, 세아에샵에서는 한국의 명소와 이란의 국경일이 표시된 탁상용 달력, 용접재료가 소개된 소형수첩, 그리고 세아그룹 소개 카탈로그를 준비하고 고객 상담을 지원했다. 처음 참가하는 전시회여서 부스는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는 대형 제품사진과 용접제품들로 소박하게 꾸미고, 태극기와 이란국기를 상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란에도 용접재료 생산업체가 있어서 일반 탄소강용 용접봉은 로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반면, 스테인리스 같은 특수봉을 생산하는 업체는 적어 가능성은 충분했다. 전시회에서도 그러한 점을 집중 홍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객과 상담에 임했다.

2002년에 처음으로 이란에 용접봉을 수출한 이래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세아에샵의 브랜드인 SMP 용접봉을 알린 덕분에 전장을 찾은 방문객 중에는 세아에샵의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 End User와 현지 대리점이 많았다. 특히 한국문화가 소개된 탁상용 달력을 보고 달력 속의 명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으면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란까지 제품을 홍보하러 온 것에 대하여 매우 흥미로워 하는 눈치였다. 한국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세아에샵, 나아가 세아그룹을 소개할 수 있었다.

용접재료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산업소재이지만, 소비자의 선호도와 기호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소비재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아에샵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고객이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브랜드의 홍보에 초점을 맞추어 "Quality welding? Ask SMP"라는 모토로 전시회를 공동 운영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직접적인 수주 성과를 크게 올리는 못했었지만, 이란의 경제가 활발해지고 정치가 안정되어 시장이 보다 개방되는 날이 오면, 세아에샵의 제품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회상해 본다. 이란 전시회 이후로 세아에샵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시리아 등 중동시장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세아에샵의 용접봉 수출의 길을 열고 있으며, 또 더 큰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6년 이란 전시회는 수출 담당자로서 나에게 중동시장 개척의 사명감을 심어준 큰 동기가 되었다.

* 이슬람 혁명: 1979년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킨 혁명



세아베스틸이 대형단조사업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설비 도입으로 분주한 가운데, 지난 2월에 대형단조 전용의 150t 전기로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까지 밤낮으로 노심초사한 주인공이 있다.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이승헌 과장. 그는 올해 4월 2기 챌린지 리더 교육 당시 개인별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표에서 1위를 차지해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준 제강설비팀 에이스다.

이승헌

세상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남자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과장



1. 제2기 챌린지 리더 문제해결 수행과제 1위에 선정된 배경

챌린지 리더 교육과정 중 프레젠테이션 시간에 배운 기술과 요령을 적절히 접목하면서 혼자 며칠 동안 회의실에서 시간을 재며 연습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컨디션으로 발표에 임할 수 있었지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론적 지식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선임사원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2. 세아의 인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창의’와 ‘소통’ 그리고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세아가 계속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꿈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곳이 재미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3. 최근 가장 큰 이슈

세아베스틸이 대형단조사업에 진출하면서 신설된 150t 전기로 설비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전기로에서 세아베스틸의 꿈과 미래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직은 가동률이 높지 않지만, 조성과 풍력시장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점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기간산업과 수출에 일조했으면 합니다.

4. 제강설비분야에서 일하며 느낀 가장 큰 보람

세아베스틸이 세아가족이 되어 도약하던 2005년, 제강설비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2006년까지 이어진 대규모 설비 투자의 중심에 있다 보니 휴일은 물론 명절, 연휴도 없이 회사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어도 그 때만큼 열심히 일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5. 가장 힘들었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고, 이론과 실체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설비 트러블에도 원리를 알지 못해 원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해결이 지연되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배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제가 그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힘겹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넘겼기에 세아베스틸 구성원으로 지금에 이른 것이겠지요.

6.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약속입니다. 말만 앞서고 항상 지키지 못해서 미안할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의 개조 및 개선에 대한 약속, 업무 관련 약속, 그리고 제아들과 한 약속이 그러하겠지요. 하지 못 할 일을 약속하지 않고 벨은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앞으로의 바람과 목표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선배들에게는 믿음직한 후배이자 후배들에게는 닮고 싶은 선배로 기억되고 싶고, 조직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족이 평안하면 제 일도 평안한 것 같아요.

이승헌 과장 들여다보기

긍정적이고 순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승헌 과장은 크게 모나지 않고, 낙천적인 성격이라 자신을 소개한다. 185cm의 훗칠한 키와 농구선수 같은 체격 등 눈에 띄는 외모로 인해 대형 설비를 다루는 직업이 체격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친근한 미소와 배려가 묻어나는 말투에 더없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승현



Profile

이름 | 이승현

별명 | 얼큰이, 대발이(얼굴이 크다고-사실 조금 큼) 입사 동기가 붙여주었다. 대발이는 발 크기가 300mm이기 때문. 디자인은 애초에 포기하고 맞는 신발이 있으면 무조건 사고 본다.

좋아하는 것 | 먹는 것. 특히 고기. 회사 동기모임, 학교 동창모임 등 아는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싫어하는 것 | 모르는 사람들과의 모임. 어색한 것은 질색이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

인생의 모토 |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비록 새롭지 못하더라도 새로워지려 노력하고,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자.

행복을 가져다 주는 다섯 가지



하나. 우리 가족

아내와 아들 둘,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두 아들은 말 안 듣는 것 빼고는 다 좋아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 잘 생겼습니다.



둘.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동료들

제일 많이 함께 얼굴을 보고, 제일 많이 함께 밥을 먹고, 제일 많이 함께 땀 흘리고 있습니다. 작업복이 깨끗한 날이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우리 기계·전기 설비팀원 여러분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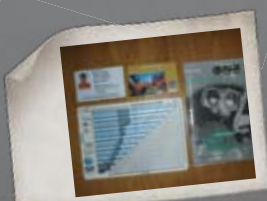
셋. 꿈을 이루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

요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접한 '꿈을 이루는 방법'에 한창 심취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이 별(전문가, 기술자 등이 되어야 하고, 별이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데 별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넷. KCC 이지스 농구단

작년에는 준우승에 그쳐 안타까웠어요. 이상민 선수만 있었더라도 우승했을 텐데요. 야구장과는 달리 농구는 실내경기여서 아끼지기한 맛이 있습니다. 추승균 선수 수식어가 '소리 없이 강하다'인데 참 멋있는 말이죠? 저도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섯. 스쿠버 자격증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흐뭇합니다. 아내와 같이 겁먹고, 물 먹어가며 취독한 건데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내랑 아주 요긴하게 사용 하렵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갈 곳이 많아 걱정이네요.

미래로 함께 가는 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길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세아의 주인공들이 있기에 세아는 오늘도 미래로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뚝뚝 뭉친 세아의 퍼플오션

세아 E&T 터보사업부 연구개발팀



터보압축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레드오션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고가 필요하다. 여기 세아의 퍼플오션을 개척하는 정열과 의리가 넘치는 사나이들, 세아 E&T 터보사업부 연구개발팀이 있다.

터보사업부의 핵심이자 선봉

세아 E&T 터보사업부 연구개발팀의 주 업무는 터보압축기의 신제품 개발 및 설계, 압축기 수주의 기술 엔지니어링과 PM이다.

지난해에는 MVR 스팀 터보 압축기를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국산 MVR 스팀 터보 압축기 상용화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해외 선진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MVR 스팀 압축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2009 세아그룹 업적상의 기술 분야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단일 수주가로는 최고인 56억 원의 신규 압축기 수주로 이어졌고, 현재 2010년 10월 납품을 목표로 '5단 직렬 MVR 스팀 압축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해 이산화탄소 가스 압축기, 5,000HP급 대형 압축기, MVR 스팀 압축기, 프로세스 압축기 등 신제품 개발과 영업기술 지원을 통한 고수익 압축기 시장 개척은 물론, 설계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제작 기술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터보 압축기의 신제품 개발 및 설계를 위해 원천 설계 기술인 공력 설계, 고

속회전체 설계, 제어시스템 설계의 기술 확보를 비롯해 산학 협력, 해외 선진 업체의 기술 도입으로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터보 압축기 전문 기술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렇듯 연구개발팀은 대내 고객(영업팀, 생산팀, 품질보증팀)과 대외 고객 만족을 위한 신제품 개발부터 설계, 제작, 엔지니어링의 모든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터보사업부의 중추적인 핵심 역할과 선봉 역할을 수행한다.

시원한 소통이 장점인 젊은 조직

연구개발팀의 팀원들은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과 '세계 최고의 터보 압축기 전문 제작사'를 꿈꾸는 신념에서 비롯된 열정으로 뚝뚝 뭉쳤다. 이로써 신제품 개발과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터보 압축기 전문 기술력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밑거름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연구개발팀 사무실에 들어서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개인별 책상 이름표에 적힌 두 개의 알파벳이다. 이는 인간의 행동 유형을 4개의 요소로 나누어 각각 스타일의 장·단점들을 분석한 '퍼스널 프로파일 시스템-DISC 유형 분석'으로 자신이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이름표 옆에 DISC 유형을 적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행동 유형과 성격을 알고, 팀원 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여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덕분에 연구개발팀은 개성이 뚜렷하지만, 시원시원하고 멋진 남자들이 모인 젊은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업체와 경쟁한다는 것”

INTERVIEW

세아 E&T 터보사업부 연구개발팀 이명희 팀장

우리 팀의 장점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 도전정신이 강하고 패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터보가 강력하게 회전하는 것처럼 우리 팀원들의 생각과 마인드는 항상 깨어있으며 활발하게 운동 중입니다.

우리 연구개발팀의 주 업무는 터보압축기를 설계·개발하는 일입니다. 국내에 실제로 터보를 설계·제작·개발하는 회사는 2개뿐이에요. 그 말은 곧 경쟁사들이 모두 두 글로벌 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더 멀리, 더 넓게 보기 때문에 더욱 더 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도 하고요. 저희 팀은 9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지만, 서로 도와가며 협동심을 기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팀원들이 고맙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팀워크와 성과를 자랑하지만 팀원 개개인이 모두 최고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 팀의 바람입니다.

세아 E&T 터보사업부 연구개발팀



이정원 대리

MVR 프로젝트 담당.
외아들이지만 모임에선 리더를 맡고 선후배의 가교역할 담당.

손영훈

전기/제어 설계 담당.
유쾌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입사 1개월 차 신입.



오광진 과장

염료감응 태양전지 개발 담당.
꼼꼼한 성격.
캠핑을 좋아하는 쌍둥이 아빠.

김현수

기계설계 담당. 전국기능올림픽 기계제도/CAD 분야 메달리스트 출신의 로맨티스트.

최재일

기계설계 담당.
사교성이 좋아 국제적인 관계까지 아우르는 신입.



문재석 대리

기계설계 수주 업무 담당.
지나치게 명랑하고 쾌활한 세 아이의 아빠.

황동연 대리

기계설계 담당.
직설적이고 거짓말 못하는 대인배.
결혼 3개월 차의 새 신랑.



성민보

전기 로직 제어와 수주업무 담당.
김남일을 닮은 강철체력의 상큼한 솔로 신입.



백종규

염료감응 태양전지 개발 담당.
입사 첫 날 액땀을 제대로 한 신입.



이명희 팀장

터보 압축기 설계, 개발, 엔지니어링 담당. 거짓말을 잘 못하는 노력파



양성모 대리 (Part Leader)

기계설계 파트 총괄.
매사 구분이 명확한 성격.



정주량 대리

전기 제어 설계 담당.
꼼꼼함과 신중함이 강점인 컴퓨터 박사.

세아에삽 25년과 함께 한 주인공들

생산팀(후처리B팀) 전학연 · 1992년 입사, 18년 근속

1. 회사에서의 통칭

빵연. 빵을 너무 좋아해서 붙여졌습니다. 또 성격이 대쪽같다고 해서 대나무라 부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2. 장기근속의 비결

건(件)강한 정신과 건(件)강한 육신입니다. 독감이 걸려 앓아있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파도 18년을 한결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3. 기억에 남는 일

그룹사보에 두 번씩이나 이름이 실렸던 거죠. 1992년 입사 직후 사내 품질교육 후 치러진 시험성적이 우수해서 당시 부산파이프 사보에 게재됐었어요. 2008년에는 우리 후처리 B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영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 항상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루 한 번씩 기도하자”고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4. 좌우명

입사해서 ‘나의 편함은 남의 불편함’이란 글귀를 본적이 있죠.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이나마 덜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5.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손자들 또래의 학생들과 공부하더라고요. 늦게라도 용기를 가지고 배움의 길로 들어선 모습이 부러웠어요.

세아에삽이 5월 20일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세아에삽이 걸어온 25년의 길은 갖가지 난관과 도전에 마주해 성장의 역사를 일궈온 세아에삽 가족들의 땀과 열정으로 닦아온 길이자, 그 개인의 소중한 추억과 역사가 함께 만들어진 길이다. 어엿한 청년기업으로 거듭나 더 큰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세아에삽의 장기근속자 4명을 만나보았다.

생산팀(후처리B팀) 황인범 · 1994년 입사, 15년 근속

1. 회사에서의 통칭

황씨 아저씨. 특별한 이유랄 건 없고 드라마에서도 종종 감초 역할로 등장하는 ‘황씨 아저씨’의 존재처럼 풋풋하고 친근하게 느껴져서 인가 봐요.

2. 장기근속의 비결

입사할 때 아내 했던 말이 “당신, 6개월도 못 버티고 나올 거야”였습니 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악으로, 강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본적인 비결이라 하면, 역시 회사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겠지요.

3. 기억에 남는 일

예전에 사무동 2층으로 사장님의 비서를 찾아가던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던 직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멈출 뻔 했습니다. 그 방은 여직원 탈의실이었고, 찾던 분은 마침 치마를 올리는 중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입니다.

4. 좌우명

궁금한 건 어떻게든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도 있지만, 평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습관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지금의 자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5.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세아에삽이 모든 사원 가족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직장이 되길 바랍니다. 욕심과 시기를 버리고 배려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팀원들과 함께 조금씩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산팀(전처리B팀) 염동진 · 2000년 입사, 10년 근속

1. 회사에서의 통칭

‘염 선생’. 휴게실에 파리 잡는 기계를 설치하면서 이름의 ‘동’자를 빌어 톱파리로 불린 적이 있었지만, 저의 점잖아 보이는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엔 염 선생이라는 품위 있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 장기근속의 비결

세아에삽의 한 길, 한 가족 문화에 서서히 동화되어 진정한 가족임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3. 기억에 남는 일

동료들과 제주도로 야유회를 갔을 때. 다음날 야근 작업이 있어 귀가를 서둘렀지만, 곳은 날씨 때문에 저가 항공기들이 결항되어 발만 동동 구르다 결국 서울행 비행기와 KTX를 택했어요. 하늘도 간절한 마음을 알았는지 작업시간에 무사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4. 좌우명

누가 내게 손 내밀기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려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행동이 쉬운 건 아니지만, 조금씩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5.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현재 맡은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정년퇴직 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국내영업팀 김용빈 · 2005년 입사, 5년 근속

1. 회사에서의 통칭

김구. 최근에 동근 뿔테안경을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흑자는 김수철이라고도 하네요.

2. 장기근속의 비결

5년을 장기근속이라 말하긴 쑥스럽습니다. 30년은 지나야 오랫동안 안 회사를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일을 하는 저만의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3. 기억에 남는 일

한진중공업 담당을 맡고 3개월 만에 Vendor-out된 일입니다. 지금은 다시 회복했지만, 영업담당자로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문책감이었지만 믿고 기다려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4. 좌우명

어떻게든 중간은 하자. 너무 잘해도, 너무 못해도 욕먹으니까. 그렇다고 되는대로 하진 않아요. 나름의 열(熱)과 성(誠)을 다합니다.

5.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인생의 모토가 ‘즐거운 인생’인지라 지금처럼 일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한다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부터
생산팀(후처리B팀) 전학연,
생산팀(후처리B팀) 황인범,
생산팀(전처리B팀) 염동진,
국내영업팀 김용빈

더 큰 희망을 향해 뛰는 세아제강

세아제강은 2010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창립 이래 세아제강의 직원들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

세아제강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자 기획한 이번 행사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참여인원 250명을 목표로 세아제강 전국 사업장에서 펼쳐졌다.

4월 30일 창원공장을 필두로 5월 6일 포항, 5월 10일 부산, 5월 17일과 27일 군산 등 각 사업장으로 차례차례 이어져 사랑의 릴레이로 번졌다. 특히 지정된 날짜에 출장이나 외근으로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별도로 헌혈의 집 방문을 통해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일부 직원들은 보유하고 있던 헌혈증서

를 아낌없이 기부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은 당초 목표를 초과해 257명에 이르렀다. 세아제강은 이를 헌혈 인원 1명 당 10만 원을 적립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기금을 마련하여 목표 금액이었던 총 2,500만 원을 1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이 기금은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고생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 환우들에게 수술비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2010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세아제강은 창업 이래 감사와 겸허의 자세로 묵묵히 기업을 키우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세아제강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한 이번 헌혈 캠페인 역시 우리사회를 보다 온정 넘치는 곳으로 가꾸려는 세아인들만의 노력이 반영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거창



하지는 않아도 직원 한 명 한 명이 성심을 다해 헌혈로써 이웃과 마음을 나누어 온 것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면서 이번 캠페인에서와 같은 헌혈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 세아제강은 이러한 나눔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펼쳐가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세아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함께 뛰어서 더욱 의미 있는 철강마라톤

제11회 철의 날을 기념한 철강사랑 마라톤대회가 16일 경기도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원에서 전국 철강사의 마라톤 동호회를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 등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는 제11회 철의 날을 맞아 전 국민에게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철강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2004년 이후 매년 개최해온 행사이다.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탄소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철강업계 CEO들이 직접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참가자 전원이 '녹색 꿈은 다 함께!', '마라톤은 신나게!' 등 저탄소 녹색성장 문구가 포함된 등번호를 달고 뛰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인 자전거 300대와 황금측백나무 1천여 그루를 나누어 주었고, 나무심기 성금도 모금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는 세아제강 가족들은 어느 해보다도 열띤 참여 의지로 전국 사업장에서 모여들었다. 본사 115명, 포항 76명, 창원 39명, 군산 21명, 강관2공장 7명 등 총 258명이 참가해 단체 참가자로는 5번째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했다. 무엇보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최고의 대회라는 찬사가 나올 만큼 마라톤 참가자 전원에게 주방기구세트를 증정하고 경품으로 LCD TV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제품이 제공되었다.



강남도시가스 요금팀 김진성 대리 가족의 오션월드 나들이 파란 나라를 만나고 온 하루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아빠와 엄마는 보여주고 싶었다. 강남도시가스 요금팀 김진성 대리와 부인 최혜경 씨는 올 여름의 문턱에서 새하얀 차들 같은 두 아들, 정수와 민재에게 시원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오션월드를 찾았다.



해를 식히며 파도야 놀자

엊그제 막 6월이 되었다고 하기에 햇볕이 너무 따갑다. 한 여름의 뜨거움을 머금은 태양이 김진성 대리 가족을 비춘다. 이따금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면 8월 정도로 착각할 수도 있었다. 시원하게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 빨리 가서 물놀이하자고 조르는 정수와 민재를 닮았다.

올해 부서가 변경되고 새로운 업무를 챙기다 보니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줄어 항상 미안했다는 김진성 대리. 이번 기회에 때 아닌 피서(?)를 오게 됐다며 흐뭇한 표정이다.

아빠와 엄마가 수영복과 간식을 챙기러 간 사이 해사한 얼굴의 정수는 물에 들어가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엄마를 찾는 민재가 울먹이자 놀고 싶은 마음은 어디에 넣어 두었는지 “민재야, 엄마 곧 오실거야. 형이랑 여기 있어야 돼”한다. 혜경 씨가 “어린이 집에서도 정수가 민재를 정말 잘 챙겨서 형이 아니라 누나 같대요”라고 귀띔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동생을 잘 돌보는 정수 덕분에 아빠 엄마의 나들이도 즐겁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아빠와 엄마를 닮아서 두 꼬마의 낮빛도 밝다.

종종 걸음을 치는 여섯 살 정수는 아기 때부터 물을 좋아해서 어젯밤부터 신이 났다. “와~ 아빠 저기 가자! 빨리 빨리~” 김진성 대리 가족은 정수의 손에 이끌려 야외 대형파도풀로 향한다. 대형파도풀은 파타야의 해변처럼 산호빛이다.

긴장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음과 함께 인공파도가 물려온다. “와아~!” 김 대리의 손을 잡고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정수, 아직은 파도가 무서워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지만 싫지



않은 민재. 아무리 놀아도 지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동화책 속의 주인공들이 되어

결혼 전까지 영양사로 일했던 혜경 씨는 이 날, 새콤달콤한 샌드위치를 싸 왔다. 얼굴도, 마음씨도 예쁜데 음식 솜씨까지 좋으며 김 대리의 팔볼출 가족자랑이 시작됐다. 네 식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포근하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너무나 아쉬워요. 전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휴가계획을 잡아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죠. 굳이 먼 곳이 아니라도 평소에 시간을 내어 공원도 가고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진성 대리는 두 아들과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다. 이런 아빠의 맘을 아는지 두 아들도 김 대리를 잘 따른다.

그래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물으면 “형이 좋아”라고 대답한다는 깜찍한 민재. 아빠 엄마의 포근함 속에서 두 아이는 밝고 씩씩하게 자랐다. 이 두 형제는 집에 돌아가서도 연신 “오션월드!”를 외치며 또 가자고 졸랐단다. 의젓한 정수와 꼬꼬마 민재의 푸른 하루. 오늘 밤 아이들의 꿈에 혹시 치루치루와 미치르의 파랑새가 나오지는 않을까.



5월 10일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2010년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국 12개 대학교 61명 지원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21명의 학생들은 이운형 재단이사장의 환영과 격려 속에서 세아의 장학생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010년 장학생 선발



“재무 전문가로서의 꿈을 더욱 소중히 키워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 구중엽

세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0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 구중엽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뛰어 놀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는 자동차나 선박에 들어가는 밸브에서부터 가구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금속을 가공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등 고생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재무관리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보며 제조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무 전문가가 되기로 마음 먹고 경영학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에서 재무관리 전문가의 꿈을 한창 키우다가 군에 다녀온 저는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걸 느꼈습니다. 꿈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장학금 수혜가 절실했습니다. 때마침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생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서류심사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땐 정말 기뻐했습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는 착실하게 면접을 준비하여 심사위원들 앞에서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제 마음이 전해졌는지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어 지금 이렇게 장학생 대표로 세아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꼭 세아그룹같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기업에 도움이 되는 재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세아의 이름처럼 저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3학년 김영근

세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북대학교 금속신소재공학과 3학년 김영근입니다.

제가 세아를 처음 접했던 것은 학교에서 개최된 취업 설명회에서였습니다. 구성원 각각이 존중 받고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라는 선배님의 말씀에 무척 호감을 느꼈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장학생 선발 심사에 참여하며 면접자 한 명 한 명에 집중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배려 깊은 분위기를 직접 실감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앞선 기업'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틀을 꼬박 걸려 정성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예정보다 늦게 발표되었던 합격자 명단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은 초조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면접 장소로 방문하는 과정도 회사 건물을 쉽게 찾지 못해 고생했던 순탄치 않은 길이었지만, 원하고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로 돌아와 더할 수 없이 기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반갑게 맞아 주셨던 재단 직원분들의 따스함에 저도 '세아'의 일원이 되는 상상을 했던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졸업까지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전공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헛되이 만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제 의지를 계속해서 더욱 크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아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공채나 인턴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놓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아의 장학생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으로써 장학금 혜택이 적합한 인재에 대한 가치 있는 투자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2년 설립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의 학생들 간에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고, 애국심과 긍정적인 세계관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roup News

2010년 그룹 공장장워크숍 개최



2010년 그룹 공장장 워크숍이 6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개최됐다. 8개사 사업부별 공장장 총 22명이 참석해 세아베스

틸의 신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단조공장 견학을 시작으로 '성과창출 조직을 위한 인원 역량 향상' 특강을 경청했다. 이어 각 사의 벤치마킹으로 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 사례, 임직원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는 가운데 세아특수강의 '소통 문화 활성화'가 좋은 사례로 주목 받았다.

세아제강

계열사 테니스대회 개최



세아제강 창원공장은 5월 30일 세아그룹 계열사들을 초청해 창원시립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휘령 사

장과 세아메탈 고윤준 대표 등 여러 내빈이 자리를 빛내는 가운데, 세아제강 창원공장 및 세아메탈 연합, 세아제강 포항공장, 세아베스틸, 세아 ESAB, 한국반디 등 5개 계열사 80여 명이 테니스 경기를 펼쳤다. 그 결과,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우승, 세아제강 창원공장 및 세아메탈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테니스 대회를 계기로 계열

사 직원들은 친목과 우호를 다지며 화합,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아제강 사장배 사업장 대항 축구대회 개최



세아제강 포항공장에서는 6월 13일 '창립 50주년 기념 세아제강 사장배 사업장 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휘령 사

장을 비롯해 각 사업장 임직원 약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아제강 본사, 창원, 군산, 포항 등 4개 팀이 경쟁한 결과, 군산공장 팀이 3승 1무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이번 축구대회는 세아제강 모든 사업장이 우정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어 지속적인 교류로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세아베스틸

제강/연주 생산량 신기록 달성

세아베스틸 제강/연주팀이 5월 제강/연주 생산량 175,028t을 달성하는 생산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2008년 10월에 세운 165,885t의 종전 기록을 깨고 9,143t을 더 확대한 규모이다. 제강/연주팀 일동은 "관련된 모든 부문의 담당자들이 물심양면 도와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품질확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이익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0년 IR(기업설명회) 개최

5월 27일 세아베스틸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철강전문지 기자 등 약 40명을 초청해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 이승휘 대표는 2004년 이후 특수강사업을 강화한 수익성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추진의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려온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새롭게 진출한 대형단조사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차별화한 만큼, 고급 단조품 시장을 겨냥해 조기 시장진입과 빠른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설명회 후 초청단은 특수강 공장 생산규모 증설 현장과 대형단조공장의 13,000t 프레스 작업을 견학했다.

대형단조공장 안전기원 결의대회 개최



대형단조공장의 안전기원 결의대회가 5월 26일 대형단조공장 13,000t 프레스 앞에서 진행됐다. 대형단조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안전문화 기반 정착의 취지로 열린 결의대회는 150여 명의 임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승휘 대표이사의 축하를 시작으로 단조팀의 프레스 시험 가동식, 안전 기원제, 무재해 구호 제창으로 진행됐다. 이승휘 대표는 "13,000t 프레스가 가동되면서 대형단조사업이 본격화 된 만큼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능직 사원 호칭제도 도입

세아베스틸은 5월부터 성숙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기능직 사원의 호칭제도를 실시한다. 이 호칭제도는 직책이나 호칭이 모호한 기능직 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높여 일의 능률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만 4년 이상은 기사, 만 8년 이상은 주임, 만 13년 이상은 기감으로 정하고, 4년 미만의 사원은 이름으로 칭하도록 했다. 2010년 호칭 부여 대상자는 기사 145명, 주임 73명, 기감 844명으로 총 1,062명이다.

사우 부모님 초청孝행사 개최



세아베스틸은 6월 9일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회사와 가정의 융화를 위해 사우 부모님을 초청하는孝 행사를 개최했다.

회사 홍보 비디오를 시청하고, 이승휘 대표와 노조위원장의 환영을 받은 후 부모님들은 직원들이 일하는 현장을 견학했다. 이후에는 새만금 방조제, 부안 영상테마파크로 장소 옮겨 견학했다.

세아특수강

조사모범납세자 선정

세아특수강이 5월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조사모범납세자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2009년 하반기 정기 세무조사 결과 '무결점' 세무처리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결과



로, 향후 5년간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과는 특히 국세청이 연고 지역의 지방국세청을 배제하고 직접 교차 세무조

사를 실시한 것으로 의미가 더욱 깊다. 이로써 세아특수강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세아의 경영이념을 충실히 따르고,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한국번디

광주공장, 1:1 이등 금연 클리닉 시행



한국번디 광주공장에서는 직원들의 건강과 보다 나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1:1 금연

클리닉을 시행한다. 광주 광산보건소와 함께 5월 19일 시행에 들어간 금연 클리닉은 향후 6개월간 시행되며 한 달에 두 번 전문 상담가가 회사로 방문하여 금연 희망자와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금연 수치를 수시 체크하고 금연 보조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공장, '아버지 학교' 강좌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한국번디 광주공장에서는 '아버지 학교'라는 테마로 사내강좌를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광주공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25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강좌에서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자녀의 사춘기를 준비하는 부모들이 갖춰야 할 대처방안과 가정 내의 올바른 대화법을 다루었다. 바쁜 생활에 쫓겨 관심을 충분히 쏟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참된 자녀교육의 길잡이를 제시했다.

'G-KBC Level-2' 사내자격증 활성화 워크숍 실시

광주공장은 5월 25일 사내자격증 'G-KBC Level-2' 실시를 앞두고 워크숍을 실시했다. 노동부가 인증하는 이 사내 자격증 제도는 2009년 광주공장에 처음 도입되어 Level-1의 경우 높은 취득률을



보이며 Level-2 과정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워크숍은 보다 높은 합격률 달성과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Level-2 과정도 사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 행사는 경남직접자 혈액원의 헌혈차량이 본사를 방문하면서 진행되었다.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본사 임직원 총 40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세아에샵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참여

세아에샵은 5월 7일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 행사는 경남직접자 혈액원의 헌혈차량이 본사를 방문하면서 진행되었다.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본사 임직원 총 40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제13회 한마음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세아에샵은 5월 8일 사원 자녀 초청 한마음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100

여 명의 사원가족이 참여한 행사는 그림 그리기와 백일장, 레크리에이션, 점심식사, 시상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박순욱 사우가 레크리에이션을 직접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25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세아에샵은 5월 19일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회사발전에도 공헌한 직원들을 시상하며 자축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역대 대



표이사 세 분이 참석해 기념식 자리를 더욱 빛냈다. 김시원 고문은(2대, 5대 대표이사) 100년 기업을 향

한 low cost, 끊임없는 혁신, 정열적인 애사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3대 대표이사를 지낸 이종영 전 사장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남이 가지 않는 Blue Ocean의 길을 개척하는 회사로 키워 나갈 것을 당부했다. 4대 대표이사였던 공원일 고문은 생산능력과 매출액의 놀라운 성장에 찬사를 보내며 사원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결과인 만큼 세아에샵만의 '한길 한가족' 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키도록 격려했다. 기념식은 세아에샵 모든 임직원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 제막을 끝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했다.

2010 The Japan International Welding Show(JIWS) 참가



세아에샵은 4월 21~24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 웰딩쇼에 참가했다. 2010 JIWS는 동경과 오사

카를 오가며 2년마다 열리는 국제 용접 전시회로 아시아에서 2번째 규모를 자랑한다. 총 203개 참가사, 94,000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은 이번 전시회에서 세아에샵은 주력 상품인 플러스 코어드 와이어를 중심으로 각종 용접재료들을 소개해 용접제품 대리점과 수요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The 15th Beijing Essen Welding & Cutting Fair 참가

세아에샵은 5월 27~3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The 15th Beijing Essen Welding & Cutting Fair 에 참가했다. 매년 북경과 상해를 오가며 열리는 이 전시회는 세계 2위 규모의 국제전으로 중국시장



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발전해왔다. 세계 30여 국가, 97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국기업들은 70%

에 달했다. 수요 산업에 따라 고품질의 용접재료를 소개한 세아에샵은 수년간 쌓아온 고품질의 이미지가 시장에 반영되어 해외 많은 방문객들의 문의를 받았다.

세아메탈

독일 뒤셀도르프 Wire and Tube 2010 참가



세아메탈은 4월 10~15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Wire and Tube 2010에 참가했다.

약 1300개사, 50,000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신제품 전시와 품질이 향상된 제품을 소개하며 세계 Wire 시장의 수요가 및 제품별 동향과 경쟁사들의 영업현황 등을 살폈다. 수출 담당자들은 경쟁이 치열한 중국, 인도 제품에 대한 대응과 수출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세아이엔티

ASME CODE 교육 실시

기계사업부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ing) CODE 사내 교육을 실시한다.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주 2회 실시되는 이 교육은 Pressure Vessels,

NEWS

Vol.327
2010 05 06



Heat Exchanger, Tower 및 Boiler 등의 설계 및 제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ASME CODE 교육으로

기계사업부는 현업에 접목한 빠른 업무 이해와 숙련도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강남도시가스

상반기 가스안전 캠페인 실시



강남도시가스는 5월 4일 본사 전 임직원, 고객센터 센터장, 구로소방서 임직원 등 약 150 명이 모여 구로역

과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가스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철 역사 출입구에서 안전구호를 제창하며 가스안전 메시지 전달에 노력하는 한편, 홍보차량을 이용해 안전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안전홍보물을 배포했다. 또 주변 환경정비에도 관심을 쏟아 지역사회를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세아로지스

CS마스터 교육 참여

세아로지스가 우수화물기업 인증사의 자격으로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5기 CS마스터 3개월 교육과정에 참여했다. 교육은 기업의 CS역량이 이벤트나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 마케팅 성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스킬과 사례를



중심으로 3월부터 3개월간 진행했다. 5월 28일 수료식에서는 경영혁신팀의 차진국 팀장이

열의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State Pipe & Supply

Rialto 시로 사무실 이전

미국 State Pipe & Supply는 2000년 Rialto에 마련한 23acre 부지에 3월 warehouse 및 본사 사무실을 완공하고 신축된 건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4월 8일 Open House를 개최했다. 약 30년 넘게 지속한 State Pipe & Supply의 Santa Fe Springs 시대를 마감하고 Rialto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됐다. Open House에서는 Rialto 시의 Ms. Grace Vargas 시장, Mr. Ed Scott 시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함께 리본 커팅식을 가졌다.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日 Panasonic 사의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

인도네시아 시장의 냉장고 부품 현지 공급을 위해 2008년 8월 설립한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가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회사인 Panasonic의 부품군별 심사에서 올해의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는 현재 Skin Condenser와 WOT Condenser를 현지 일본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번디와의 기술력 및 품질관리 협력으로 시장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빠르게 다지고 있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홀딩스

●입사**박지은 전략팀 ●출산**김창문 경영진단팀

세아제강

●입사**지규용 본사 경영기획팀 | 오한중 본사 경영기획팀 | 윤희제 본사 경영혁신팀 | 박연정 본사 인력개발팀 | 정의혁 본사 생산계획팀 | 천병우 본사 자재팀 | 서준혁 본사 판매기획팀 | 변지훈 본사 판매기획팀 | 한정우 본사 특판팀 | 이동영 본사 컬러강판영업팀 | 이정욱 본사 수출2팀 | 최지훈 본사 수출2팀 | 박형우 포항 공장혁신팀 | 권용재 포항 물류팀 | 강준현 포항 품질경영팀 | 신원조 포항 품질경영팀 | 김남균 포항 설비보전팀 | 이소영 포항 설비보전팀 | 박찬진 창원 업무지원팀 | 모주현 창원 생산팀 | 김민우 창원 생산팀 | 정종화 군산 생산2팀 | 이종택 강관 이종택 | 백광일 부산판재영업팀 | 우종원 대구영업팀 ●결혼**임환율 본사 재경팀 | 서광수 본사 자재팀 | 전석준 본사 자재팀 | 이석호 포항 물류팀 | 신상찬 포항 생산2팀 | 박광우 본사 생산2팀 | 문상목 군산 생산2팀 ●출산**박진욱 포항 생산1팀 | 김진성 창원 생산팀 | 김원용 군산 생산1팀 ●조의**하재우 대표이사(부인) | 박준형 본사 재경팀(조모) | 김숙이 본사 수출2팀(조모) | 김차진 포항 생산1팀(장모) | 김익동 포항 생산1팀(모친) | 이현구 포항 도금팀(부친) | 조현호 창원 생산팀(모친) | 이은열 창원 업무지원팀(부친) | 신승민 군산 생산2팀(조모) | 이진성 부산판재영업팀(조부)

세아베스틸

●결혼**서정훈 제품연구그룹 | 임희영 업무지원팀 | 곽규선 품질보증팀 | 김천식 제강팀 | 김정수 압연설비팀 | 박설민 소형정정팀 ●조의**정서연 품질보증팀(부친) | 박준두 인사노무팀(부친) | 박일근 일반단조팀(부친) | 황인율 대형압연팀(부친) | 신현길 연주팀(모친) | 남무선 연주팀(모친) | 최준식 영업2팀(모친) | 박건철 소형압연팀(모친) | 박종혁 제강설비팀(모친) | 김유식 소형압연팀(장인) | 양동훈 압연설비팀(장인) | 박중학 연주팀(장인) | 이병규 제강설비팀(장인) | 이희정 단품품질보증팀(장인)

세아특수강

●입사**박종만 경영기획팀 | 이정승 경영기획팀 | 이은주 추주 품질보증팀 | 허 서 포항 생산팀 | 강동훈 포항 생산팀 ●출산**김경명 포항 생산팀 | 이경도 포항 생산팀 | 김효민 포항 생산팀

한국번디

●입사**박수연 평택 경영기획팀 | 오남석 평택 생산팀 | 박지훈 평택 생산팀 | 기세진 광주 영업2팀 ●결혼**방정환 중국청도 생산/기술팀 | 이혜진 평택 영업2팀 | 이성복 평택 인력개발팀 | 이한송이 평택 인력개발팀 | 김재수 평택 생산물류팀 | 정철영 평택 품질경영팀 | 김선에 평택 품질경영팀 | 김희숙 평택 품질경영팀 | 최 성 평택 영업기획팀 | 옥치명 평택 재경팀 | 이기훈 평택 생산팀 ●출산**김재갑 평택 경영기획팀 | 정동문 평택 생산팀 ●조의**양재덕 평택 영업2팀(모친) | 이석중 평택 재경팀(장모) | 김원영 광주 노동조합(부친) | 이선호 광주 생산팀(조부) | 박동희 광주 생산팀(백부) | 양재덕 평택 영업2팀(부친) | 정동문 평택 생산팀(백부) | 최덕용 평택 생산팀(형님)

세아에샵

●입사**최두용 총무팀 | 장유일 총무팀 ●결혼**김소영 생산팀 | 김처례 총무팀 | 허명선 생산팀 ●출산**박영수 물류팀 | 박치완 생산팀 | 조정제 품질경영팀 | 이상민 영업팀 ●조의**문병구 공무(장인)

세아메탈

●결혼**전진우 창원 생산혁신팀 | 황인규 원주 생산팀 ●출산**이민수 원주 품질경영팀

세아이엔티

●입사**손영훈 연구개발팀 | 성민보 연구개발팀 | 이성조 기술팀 | 정성운 기술팀 ●출산**이명희 연구개발팀

강남도시가스

●입사**허윤진 업무지원팀 ●출산**강창수 공급관리팀

Quiz |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엽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지난호 퀴즈 정답



*지난 퀴즈 당첨자

김영희 광주 광신구 우산동
이은솔 김해 장유면 대청리
최근석 부산 수영구 남천2동
김성연 부산 사하구 다대1동
김옥남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양승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이선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한상국 세아베스틸 단품질보증팀
추민성 경주 안강읍 미술시간
최병원 포항 북구 흥해읍 성곡1리

*〈세아가족〉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 고재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
이동진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 이태원 세아특
수강 공장혁신팀(본사) | 박수연 한국번디 전략기획팀
| 손은숙 세아에샵 총무팀 | 김중훈 세아메탈 재경팀 |
김주희 세아이엔티 경영지원팀 |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 권기범 세아로지스 경영관리팀 |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기획팀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
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
이 있는 사무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
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SeAH Reader's

〈BEST 인물열전〉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제가 자란 세대와는 차이가 있고 환경
도 다르지만 옛 기억과 추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들보다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최병원 포항 북구 흥해읍 성곡1리

〈알콩달콩 우리 아빠 힘내세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감동적으로 다
가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의 끈이 정말로 소중함을 느끼며 세아가족 여러분 모
두의 가정에 화평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선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성장의 도약대가 된 포항공장 건설〉을 보며, 1976년 9월 부산공장에 입사했을 때
당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 부산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며 포항공장 건설
에 일조했었는데, 조재철 고문이 자재 부장으로 계셨고 저도 부산에서 SRM 통관
업무로 바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보를 통해 잠시 옛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
었습니다.

최근석 부산 수영구 남천2동

철의 길 50년, 세아제강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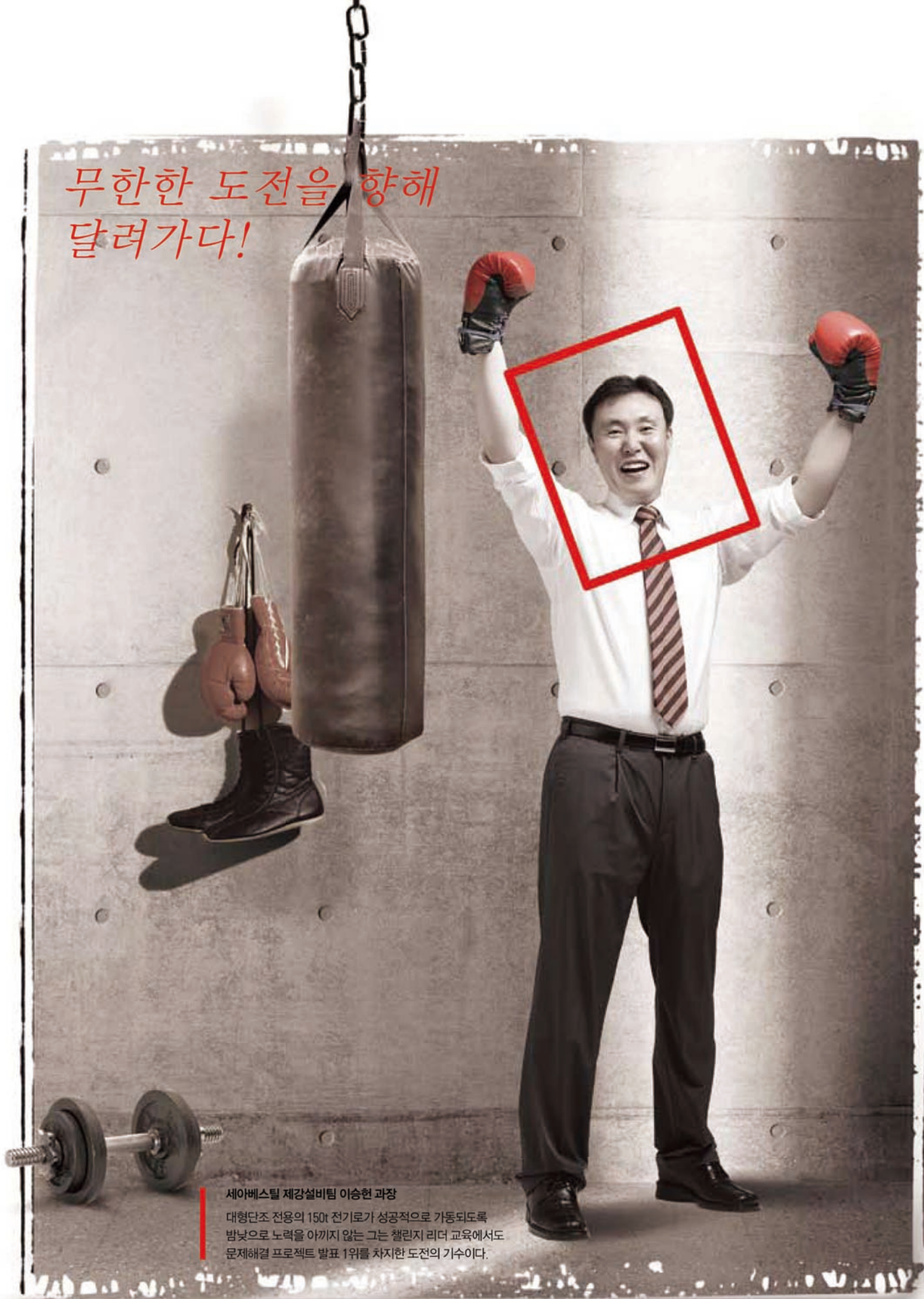
철강대국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강관을 만들고 새로운 철에 도전해온 세아제강의 50년,
그 열정과 도전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아제강은 한해한해 더욱 단단하게 세계철강의 중심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Steel Innovator
SeAH 세아제강



- 1960, 부산제강(현포항제강) 설립
- 1962, 국내 최초 강관 수출
- 1965, 1억 2천 500만 원 규모의 1호선 건설
- 1968, 국내 최초 단품보증 생산
- 1993, ISO 9001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획득
- 1995, ISO 9002 품질보증시스템 인증 획득
- 1996, 주식회사 세아제강으로 상호 변경
- 1997,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2006, 2억불 수출탑 및 동남산업훈장 수훈
- 2007, 은탑산업훈장 수훈
- 2008, 3억불 수출탑 수상
- 2009, 4억불 수출탑 수상

무한한 도전을 향해
달려가다!



세아베스틸 제강설비팀 이승현 과장

대형단조 전용의 150t 전기로가 성공적으로 가동되도록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는 챌린지 리더 교육에서도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표 1위를 차지한 도전의 기사이다.